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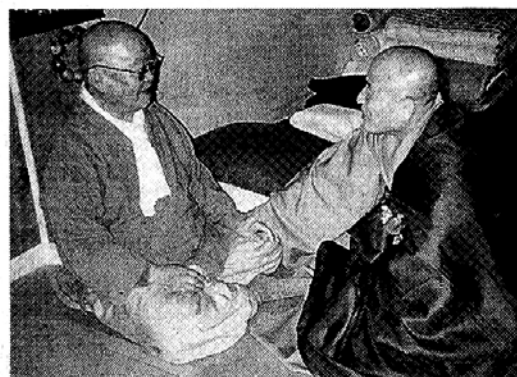
파계사 성전암 주석 **철웅스님** 경제난 극복 법회

많이 나눠 주세요”

“몸으로 아는 일체 것
모두 헛된 깨달아
분별심 버리면
본래 모습 드러납니다”

싫다 등 시비하는 분별심을 본마음으로 알고 살거든요. 몸의 그림자인 7경에서 모든 분별심이 생겨납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고 집착하는데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등 일곱가지 감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7경으로 오장육부가 녹아요.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심장 위장 간장 등은 처음부터 아프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정이 생겨서 아프게 됩니다. 거기에 감정이 생겨서 아프게 됩니다. 거기에 감정이 생겨서 아프게 됩니다.

이 분별심으로 쌓아온 무수한 선입견과 편견만 비우고 버리면 저절로 본성인 부처가 드러나고 의식도 부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 도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종교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 열쇠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성을 바르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파계사 주석 고승스님(조계종 원로의원·사진 왼쪽)에게 인가 20년만의 하산을 고하고 있는 철웅스님.

고승스님 친견한 철웅스님

“내려왔습니다” - “잘 내려왔어”

철웅스님은 이날 오후 1시 법회 참석에 앞서 내원에 주석하고 있는 파계사 주석 고승스님을 친견했다. 철웅 스님, 내려왔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고승 잘 내려왔어. 철웅 20년만에 하산했습니다. 고승 난 스님노릇 제대로 못한것 같아. 난 아주 빠졌거든. 철웅 스님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스님처럼 살기가 소원입니다. 이제 저는 길바닥에 망신살이 뻗었습니다. 고승 몸바꿀 때가 얼마 안남았어. 철웅 (고승스님 손을 잡으며) 보세요, 스님 혈액이 전보다 더 좋습니다. 스님 오래사실 것입니다.

“IMF 한파 홍청망청 살아온 과보 근검절약 정직 자신감 가지면 위기극복”

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형상도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것은 공극적인 의문입니다. 일생동안 내 몸을 팔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나를 모릅니다. 바둑을 두려면 집을 짓고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정치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천하를 경영합니다. 종착역은 놓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영웅호걸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생노병사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다들 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처이고 만물의 뿌리가 나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인치고 예고이스트가 아닌 사람

정치가 지도자가 나오겠다 이말입니다. 하다못해 세금을 내는 것도 공지를 삼아야 합니다. 국고가 본분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무슨 국방정책입니까. 정직함만이 위대한 부(富)를 이룹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코리아입니다. 국시가 흥인간입니다. 마음속에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국시를 세겨야 합니다. 고려도 고구려 옛 땅을 찾기 위해 흥인간인의 국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살까. 사색당쟁으로 억불정책으로 더럽혀진 조선조 5백년사를 토해내야 합니다. 자유당시절 혼란기를 거치고도 국방과 경제부강을 이룬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는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부지런하란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국민이 공부 안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인격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의 불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합시다. 경제난국도 마음만 비우면 돈 한푼없어도 경영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시공이 갈라지기 전 부모마생전에 이미 모두 이루고 있는 부처지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실상인 그 불성으로부터 무한한 지혜가 샘솟는 것이요.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작자수이고 인과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는 불보살님과 조상과 부모형제, 친지 자연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의 세계가 오려면 범부에서 성현으로 의식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집착을 끊어버리면 위대한 생명의 울림이 흐릅니다. 즐겁고 기쁘고 무한한 지혜가 솟아올라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실상이 부처라고 자각하면 자아 일체감이 저절로 파악되어서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비와 사랑이 구현됩니다. 자성을 직관하는 사람은 일체의 미망이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죄와 병과 죽음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이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5천여 부처님 여러분. 무량한 덕과 지혜로 잠입한 죄화를 만들어 다시 일으킵시다. 그러면 잘될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여러 본성이 위대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산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지구의 복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래의 3백년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국운은 왔습니다. 특히 정치인들도 여야 싸움말고 아름다운 풍토를 일으켜야 합니다. 잘 살고 못사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체대비정신을 실천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신뒤에 소식이 없었으니 오늘 저 4월 남쪽 바람에 보리가 익어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더라. 액 정리=위영란·이운호 기자

나와 경전



제법집요경

법성스님을 만난 것은 1975년 겨울 화엄사에서였다. 학습 임철스님이 번역한 <제법집요경>을 만난 것도 바로 그 겨울 산사에서였다. <제법집요경>은 윤회, 번뇌, 무상 등 불교 기초교리와 수행자로서 바르게 행할 바를 밝혀놓은 경전이다. 헤이해진 마음, 느슨해진 신심을 골추세워 다시금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경전이다. 나는 <제법집요경>과 법성스님을 뵈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 <제법집요경>을 통해 스님을 만날 수 있었고, 스님을 통해 <제법집요경>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창경
신구전대 교수

1975년 대학캠퍼스는 스산했다. 최후의 가스도 뒤덮이는 날이 많았고 굳게 닫힌 교문은 전경들이 지키는 날이 많은 그런 때였다. 터져버릴것 같은 답답함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던 그 해 겨울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12월 어느날 화엄사에서 겨울 수련회

같다.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 경전의 내용,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소리 모두가 감동이 있다. 몰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별이 총총한 새벽, 계곡의 울음을 깨고 찬물로 세수한 후 법당에 꿇어 앉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나니 정신이 새벽별처럼 맑아졌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머리속에서 나와 법당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새벽 바람을 쐬고 돌아와 차근차근 제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전 그대로가 아니었다. <제법집요경>에서 본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다. “탐욕은 캄캄한 어둠과 같은 것이다. 지혜의 밝은 빛이 있어야 이를 없앨 수 있다. 또 탐욕은 잠들 무성한 숲과 같이 지혜의 예리한 칼이 있어야 베어버릴 수 있다. 탐욕은 검푸른 강

윤회·집착·보시 등 차근차근 설명 교리요점 36품 10권으로 정리

를 갖는다는 불교학성회의 안내문을 게시판에서 보았다. 무엇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고통이 자연스럽게 화엄사로 향하게 했다.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내리던 눈은 구름에 도착해서도 그치지 않았다. 흰 눈을 뒤집어쓰고 도착한 우리를 처음으로 맞이하신 스님이 바로 법성스님이었다. 일주문 밖까지 나와 눈을 맞으며 우리를 반겨주신 스님에게서 알 수 없는 평온이 느껴졌다. 스님과 정직으로 인사를 한 것은 이른바 경전강독시간이었다. 법성스님이 강의를 맡았는데, 그 경전이 바로 <제법집요경>이었다.

물과도 같이 지혜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다.” 지혜의 빛, 지혜의 칼, 지혜의 배는 어디에 있는가. 어둠과 무명을 단칼에 잘라버릴 그 무서운 힘을 지닌 지혜의 칼은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 있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스님은 <제법집요경>을 강독하시며 누구나 의지할 만한 분명한 뜻을 주셨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침울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신의 전부입니까. 거울에 비치지 않은 다른 곳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허상에 얽매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법집요경>은 10권으로 되어 있다. 교리 중에서 요점을 묶어놓은 경이라는 뜻이다. 목제반포품, 설법품, 열리지신품 등 36개 품으로 이루어진 이 경의 요체는 종생이 지혜의 눈을 떠서 번뇌를 끊는다는 것이다. 육신의 예착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탐욕은 무엇인가, 보시는 무엇인가 등 <제법집요경>은 이 광범한 물음들에 차근차근 답해주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5월간의 수행을 마치고 난 마지막 밤, 일주문을 벗어나며 우리는 스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님이 아닌 사람을 보았다. 초발심의 경계를 넘어서 깨우쳐 주신 스님에게 거기 서 있음을 보았다. 그 후 스님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 삶은 혼돈의 시절, 버리는 것이 더 큰 일을 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스님에게 가끔은 <제법집요경>을 뒤적이며 스님의 흔적을 찾는다.

2천만의 깨달음을
집수행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사

귀의 상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합장

주요불사실적

- 남한산성 성불사·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암삼성사·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천 송도선원·원형천지탑 및 심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 542-1527 야간 (0351) 874-4685
공장 (0357) 542-152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戊寅年 3월 현대정보결혼연구원 5주년이 됩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는 불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5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며 우리 불자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98년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회비율 50% 감면 10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성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본명) 大幸,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02)634-4910~2 (011)288-4910

쉽고 재미있게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알기 쉽게 서술. 부처님의 삶과 교인, 그리고 그 핵심사상을 단숨에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각 지/신국판/값 4,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 720-9372~3